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폭력성

유 왕 무
(배재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복지대신 투자 환경이 중요시되고,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우선시되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민층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갈레아노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킨 점을 예로 든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협동으로 벌이는 환경파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녹색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아노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잘 그려내고 있다.

주제어 :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신자유주의, 폭력문학, 『거꾸로 된 세상의 학교』,
『씨라 그리고 버려라』

1. 머리말

21세기 들어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경제정책과 다양한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와 연결시켜 문제와 해답을 제시하곤 한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지금은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대처수상에 의해 비롯되었다. 소위 대처리즘이라 불리며 침체된 정국을 타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인 경제드라이브 정책을 실시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미국으로 건너 가 더욱 공고화된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로 확산된다. 신자유주의는 1981년 제40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 시대에 이르러 미국의 확고한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 대통령을 거쳐 제43대 조지 부시 대통령 시대에 정점을 이루었다. 특히 부시 정권하에서 9.11. 참사와 맞물려 더욱 강화되고 미국에서 지배논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¹⁾ 신자유주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결정에는 반드시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믿음 위에서 존재한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에 빠진 나라들을 구제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대외적 시장개방,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수출지향 발전 전략 등을 주문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제위기에 빠진 국가들에서는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 기술관료들이 정치적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전통적 통치계급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권

1) 헨리 지루, 『신자유주의의 테러리즘』, 변종현 역, 인간사랑, 2009, 102쪽.

력관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고 사회복지 정책이 축소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노동자들은 실직 걱정에 빠지고 중산층은 급속히 와해되었다. 문화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이 심화되는 결과를 빚었다.²⁾ 시장만능주의와 대량소비사회가 만연되면서 환경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선진국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되뇌지만 선진국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지할 뿐이다. 선진국은 산업폐기물을 후진국에 은근슬쩍 떠넘기거나 환경파괴산업을 후진국으로 옮기는 것이 환경보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갈레아노는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이 라틴아메리카라고 생각한다. 오백년 동안의 수탈에 이어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는 또 다시 혼란에 빠지고 폭력이 일상화되는 비운을 맞이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렇지 않아도 마약, 게릴라 등 다양한 부정적 요소들로 인한 폭력이 지속되어 온 라틴아메리카에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폭력성을 가열시키는 인화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라틴아메리카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현상을 고발한다. 그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세밀하게 고찰하고 그 속에서 드러난 폭력의 흔적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통찰한다. 특히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의 기치를 내건 미국의 행보를 위협하고 탐욕적인 새로운 제국주의의 전형으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폭력성에 노출되고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성이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제도적, 정신적, 도덕적, 생태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다. 국제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주도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으며, 그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인들은 어떤 폭력적 삶을 감수해야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

2) 조돈문·이남섭·이내영 편,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 도서출판 오름, 2005, 5-6쪽.

표인 것이다. 갈레아노는 정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폭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2015년 4월 사망하기까지 실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왔다. 그의 작품은 거의 모두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씨라 그리고 버려라 *Úselo y tírelo*』와 『거꾸로 된 세상의 학교 *Patas arriba: la escuela del mundo al revés*』를 중심으로 위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발표된 작품들 대다수가 과거 역사문제 해석에 중심을 둔 반면, 이 두 작품은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현 시대가 당면한 문제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 시대의 핵심을 가장 잘 꿰뚫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의 목표를 위해 머리말에 이어 다음 제2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가 신자유주의 시장자유화의 바람으로 인해 얼마나 심한 사회적 불평등의 폭력성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야기된 중산층의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매스컴의 발달로 인한 대량소비사회의 형성과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일상화된 폭력의 문제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이 함유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국제기구와 초국가기업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위선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패권적 시장개방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신자유주의의 최대 이슈는 시장의 자유화다. 선진국들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자유시장이 발전과 번영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부작용도 같은 것이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갈레아노는 선진국과 국제 기술관료들이 그토록 좋다고 치켜세우는 자유시장 제도를 왜 정작 선진국들은 실천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한다.³⁾ 그 어떤 선진국도 실제로 시장 자유화를 실천한 적이 없으며, 그

3) Eduardo Galeano, *Úselo y tírelo; el mundo visto desde una ecología*

것은 약소국들의 소비를 위해서 만들어 낸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라틴아메리카가 선진국의 시장 자유화 공격으로부터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후반부터다. 공격의 선두에는 외국 채권은행들이 앞장서고 라틴아메리카 국가 내의 군부와 정치가들이 트로이 목마처럼 내부에서 빗장을 풀어주는 형식이다. 어느 때는 국가가 알아서 빗장을 먼저 푸는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라틴아메리카 국영기업들은 헐값에 팔리게 마련이고 국가는 빈털터리가 된다.⁴⁾ 하지만 해당 국가와 대통령들은 비로소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이루었다고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칭찬을 듣는다. 그러면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대통령들은 모임 때마다 “자유시장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2003b, 39)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갈레아노는 이 대목에서 ‘과연 누구의 번영을 위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노동자, 농민, 소시민들을 위한 번영이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을 위한 번영일 뿐이며, 라틴아메리카 노동자들은 쥐꼬리만한 임금 노동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강대국들은 남반구를 핵폐기물을 비롯한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어 버릴 뿐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의 유혹을 물리치는 나라에 대해서는 보다 강제적으로 접근한다. 국제금융기관들은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높은 이율의 차관을 받아드리도록 압박할 수도 있고 온 국민에게 물질만능주의와 소비성향을 강제하기도 한다.

latinoamericana, Buenos Aires: Planeta, 2003a, p. 135. 이후의 인용문은 본문에 발행연도와 쪽수만 기입할 것임.

- 4) 갈레아노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바와 우루과이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부당한 형태로 국영기업의 판매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1990년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넬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국영 항공사를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사에 팔았는데,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노선은 원래 가치보다 15배 낮은 가격으로 팔았고, 보잉 707비행기는 한 대당 1달러 54센트에 선물로 바치고 팔았다. 1998년에는 브라질의 카르도주 대통령이 국영 통신기업 텔레브라스(Telebras)를 팔아버렸다. 그러나 그 기업은 브라질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었고 1997년 순이익만 사상 최고인 39억 달러를 기록한 기업이었음을 고발한다.(Eduardo Galeano, *Patas arriba: la escuela del mundo al revés*, Buenos Aires: Catálogos, 2003b, pp.161-162. 이후의 인용문은 본문에 발행연도와 쪽수만 기입할 것임.)

이를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전문 관료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는 미국이지만 그들은 미국은 손도 안 낸다. 가난한 나라들만을 인질로 잡고 발가벗긴다. 빛이 많을수록 정치적으로 깊이 관여하며 심지어 국가경제 자체를 빼앗으려 할 정도다. 그러나 가난한 빛 투성이 나라는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마치 쌍끌이 어선처럼 라틴아메리카 각국을 끌어 담아 돈으로 그 나라를 통치한다. 이 정도 되면 국가를 명령하는 자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양대 기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갈레아노는 1996년 초, 한스 티트마이어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한 “금융시장은 점점 더 헌병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이 금융시장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2003b, 158)라는 말을 주목한다. 이제 돈을 빌려주는 쪽이 명령하고 지배하며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실질적인 통치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금융기구 전문 관료들은 제3세계에 자신들의 발전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며, 원적 조종으로 제3세계를 파탄내고 있다. 1989년 2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는 갑작스런 물가폭등으로 성난 국민들이 반정부시위에 나섰고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1991년 2월 페루 리마에서는 콜로라 전염병이 돌아 불과 며칠 사이에 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003a, 134) 그러나 병원에는 혈청도 수액도 없었다. 정부의 균형경제가 무너지면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극빈자가 급증하더니 결국 공공 보건 의료품마저 바닥난 것이다. 갈레아노는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국제기구 전문 관료들의 작품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연구실에서 단순한 숫자판을 들여다보면서 자신들의 발전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한다. 희생자들의 신음소리는 듣지도 못하고 처참한 광경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나 고민도 없다. 그렇게 그들은 전자게임 속의 전쟁처럼 라틴아메리카 인들을 소리 없이 고통 속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역사적 예를 들어보자. 신자유주의를 태동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은 1979년부터 12년

간 책임하는 동안 영국령 제도(諸島)에 대해 금융자본 독재를 행사했다. 그녀는 시위 노동자들을 진압하고 엄격한 계급사회를 부활시키며 영국을 유럽의 모델로 만들었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장군이 독재시대를 이끌며 라틴아메리카의 모델이 되었다. 그런데 갈레아노는 이 두 나라가 현재 불공평한 국가들 중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2003b, 159).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이 두 나라는 방글라데시, 인도, 니팔, 스리랑카보다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놀랄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980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후 미국의 사회적 불평등은 르완다보다 더 골이 깊어졌다는 사실이다.

갈레아노는 이에 대해 “시장의 논리가 그들의 전체주의적 독단론을 강요”한 결과라고 분석하며, 이를 두고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의 편집장 이나시오 라모네가 ‘전체주의적 세계화’라고 부른 것에 동의한다.(2003b, 159) 논리적 독단성과 강압적 수행에 대한 비판이다.

이제 자유시장 제도는 강대국들의 횡포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강대국들끼리 만들어내는 “수요와 공급의 의심스러운 결합관계”(2003a, 135)는 가난한 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갈레아노는 “부귀를 불러온다는 신자유주의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일까”라고 반문하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사회적 모순이 적었던 두 나라, 우루과이와 코스타리카의 공식 자료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1996년 현재 우루과이인 6명 중 1명은 극빈자이고, 코스타리카 5가구 중 2가구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2003a, 135) 또한 1970년에 칠레의 빈민층은 20퍼센트였는데, 1990년에는 그 비율이 45퍼센트로 증가했다는 사실(2003a, 137)도 밝혔다.

그러나 갈레아노도 이런 통계 숫자만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상황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결국 빈민층의 희생은 ‘발전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치부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갈레아노는 “우리가 단순히 치부하고 마는 그 사회적 비용의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자문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일의 조사 결과에 주목한다. 1990년 말, 독일의 『슈테른』지가 발표한 독일의 경제성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측한 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교통 체증, 대기오염, 수질오염, 식품오염 등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손실비용이 독일 국내총생산액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한다.(2003a, 137)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제도적 악영향이 정부에 의해 일정 정도 통제되고 있는 독일에서의 손실비용이 이 정도라면 자유시장에 대한 믿음이 투철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 손실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실패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 궁핍한 생활로 인해 짜들어가는 영혼에 대한 손실까지 감안한다면, 라틴아메리카에서 빈민층의 희생을 단순히 ‘발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손실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갈레아노는 동구의 몰락으로 승리감에 도취된 서구 강대국들에 대해 “동구가 몰락했다고 해서 동구가 더 나뻐고, 서구는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구에서는 ‘생산성’이라는 신(神)의 제단위에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를 희생 제물로 바쳤고, 동구에서는 같은 ‘생산성’이라는 신의 제단 앞에 ‘정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유’를 희생 제물로 바쳤던 것이다.”(2003a, 138)

이런 점에서 갈레아노는 궁극적으로 서구와 동구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믿는다. 자유시장체제를 신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라틴아메리카 인들은 발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경제 정의를 잃어버렸다. 궁극적으로 남은 것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문제뿐이다. 갈레아노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인들에게 신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을 주문한다. 남반구에 살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인들이 과연 아직까지 그 ‘생산성’이라는 신이 자신들의 삶에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III. 노동시장 유연화와 중산층의 붕괴

신자유주의가 낳은 부정적 영향 가운데 하나는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의 유연

성이란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고용했다가 노동가치가 떨어지면 그 사람을 해고하고 다른 사람으로 유연하게 교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성이 실제로 가져온 결과는 실업 증가와 비정규직 양산이었다. 그로 인한 고용 불안과 빈곤의 문제는 주요 사회 이유가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실업은 양산되고 있다. 그로 인한 실직의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갈레아노도 신기술과 세계화의 풍랑 속에서 실직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1996/7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서도 “일자리 증가가 아직 실망스러운 수준”이며 “직장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공포가 파고들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적시한다.(2003b, 170) 실업 증가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마찬가지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임금도 낮고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자리가 대부분이다. 영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10개 중 9개는 불안정하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10개 중 8개가 불안정하다. 이런 노동의 불안정은 결국 임금 하락으로 연결되는데,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사반세기 전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2003b, 172-173)

갈레아노는 실업을 유발하는 유력한 요소로 기술의 발달을 꼽는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직업의 불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직업의 불안정성은 실업과 함께 노동자들에게 매우 큰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현상은 노동시간의 증가로 나타나는 기현상을 보인다. 기술의 발달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경제학적 상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노동시간은 최근 30년 동안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연간 1만 명이 과로사하고 미국에서는 이혼과 죽음의 공포보다 직업의 공포가 최대의 스트레스 발병원인이 되고 말았다.(2003b, 175) 결국 혁명적인 기술의 발달은 균형적 임금 상승이나 노동시간의 축소 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비상식적 결과를 낳은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국가 간 경계도 없다. 기업들은 최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경영 환경을 찾아 국경을 넘나든다. 선진국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후진국으로 이동한다. 통신과 운송의 발달이 이런 현상을 부추긴

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회사를 타국으로 옮긴다고 협박하기 일쑤다. 가난한 나라의 정부는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1995년, 갭(GAP)은 엘살바도르에서 생산한 티셔츠를 팔았는데, 엘살바도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자 미련 없이 공장을 아시아로 옮긴 것이 대표적인 예다.(2003b, 182) 기업 입장에서 최고의 조건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 수준, 노동 조건, 노동 안전 등이 최악임을 의미한다. 갈레아노는 이런 현상을 현대판 ‘노예사냥’이라고 규정한다. 과거 로마가 전쟁포로를 끌고 와 노예로 만들었고 자유노동자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과거 로마 시대의 현실이 현대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력은 기업과 반대로 움직인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멕시코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최근 20년 동안 멕시코의 중산층 상당수는 빈민층으로 전락했고, 미국과 멕시코의 임금 수준이 8배 정도 차이나는 현 시점에서 멕시코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버틸 희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미국이 멕시코 국경을 따라 설치 중인 강철 장벽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솟아 있는 것이 인간 장벽”(2003b, 38)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기에는 괜찮았으나 경제 침체기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주범으로 몰린다. 선진국일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는 증오로 나타난다. 우익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적인 정책이 들어설 공간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종의 침입자 대우를 받으며 실업뿐 아니라 모든 불행의 희생양이 된다. 하시라도 본국으로 강제송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극도의 공포상태로 몰아넣는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장 힘들면서 가장 임금이 적은 일뿐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일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와 제3세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다.

실업의 공포가 지배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소위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을 뜻하는 비공식 부분이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새로 창출된 일거리 100개 중 85개가 그에 속한다.(A195) 그러나 그런 일들은 법 밖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이나 노동권의 보호도 받기 힘들고 임금도 제대로 받기

힘들다. 그렇다고 그런 일들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대다수 노동자는 “더 이상 살기 위해 일하지 않고, 일하기 위해 사는 존재”(2003a, 124)가 되고, “노동권은 저들이 강요하는 조건 속에서 저들이 주고 싶은 만큼의 임금을 받고 일할 권리”로 축소되었고, “노동은 이제 가장 쓸모없는 악습”(2003b, 169)이 되고 말았다고 갈레아노는 탄식한다. 이렇듯 상당수의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 기회도 갖지 못하는 잉여 인간이 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기도를 드려야 하는 새로운 노동 윤리가 형성되었다. 매우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치관의 형성이다.

이는 외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간의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이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제어,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추진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설프게 실천된 신자유주의가 노동의 유연성을 앞세워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노동자 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어찌되었든 갈레아노는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시장의 선진화는 신자유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의심한다. 그리고 그 수단은 전 세계 경제를 활성화하고 번영시킨다는 세계화의 원래 목적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IV. 매스컴의 발달과 폭력의 일상화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권리는 모두의 자유라고 말한다. 대중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소비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 그러면서 자유를 느낀다. 그러나 그 자유는 돈에 의해 제공된 자유다. 상업화된 자유다. 소비 정도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정상으로 통용되는 시대다. 그래서 더 많은 자유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자유를 위해 자유를 희생시키며, 자본이 새로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대중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자신이 누리는 자유에 종속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 자체를 착취하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이다.⁵⁾ 그래서 갈레아노는 ‘극도로 산업화된 나라에서도 인간이 개미처럼 일한다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 ‘돈은 과연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에 대한 공포를 가져다주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2003a, 125)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개인을 착취하는데, 대중의 심리란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주관적인 ‘기분’ ‘흥분’이다. 일정 수준의 생산 단계를 넘어서서 합리적인 소비가 한계에 다다르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제는 대중이 ‘기분’ 내키는 대로 구매하도록 충동한다. 디지털 매체는 기분의 즉각적인 배설을 매우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대중은 사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흥분을 소비하는 것이다.⁶⁾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디지털 심리정치’라는 것인데, 갈레아노의 시각도 이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갈레아노는 이 시대를 “가장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라고 규정하며, “텔레비전을 독점하고 있는 자”(2003a, 152)를 가장 강한 자라고 규정짓는다. 완벽한 정보통신 기술을 소유한 그들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다수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한다. 그들은 현대인들에게 아무 죄책감 없이 무한 소비사회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갈레아노는 대중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매체로 텔레비전을 꼽는다. 그는 텔레비전을 “전기로 만들어진 전도사”라고 표현하며 소비라는 “현대화의 복음”(2003a, 175)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요, 채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버려라’라는 말로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레아노는 이를 “시장의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적 획일화의 독재는 그 어떤 일당 독재보다 더 파괴적”(2003b, 260)이라고 경고한다. 모범적인 소비자만을 재생산하는 생활방식을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자유로운 소비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기

5) 한병철, 『심리정치』,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4, 9-14쪽.

6) 앞의 책, 62-65쪽.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보편적인 물건이 되었다. 텔레비전은 이제 세계를 명령한다. 텔레비전의 언어는 만국 공용어다. 세계인 누구나 텔레비전이 던지는 메시지를 이해한다. 텔레비전 광고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 공평하게 대한다. 그래서 광고에 나오는 물건을 사면 누구나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낭비할 권리는 모두의 자유가 아니라 소수만의 특권이다.

소비력이 전혀 없는 극빈층은 순수 소비 자본을 만들기 위해 거리의 ‘부랑아’가 되어 폭력에 손을 댈다. 요즘은 그런 부류를 ‘일회용’ 인간들, 혹은 ‘잉여’ 인간들이라 부른다.⁷⁾ 신자유주의 소비사회에서는 물건이나 인간이나 오래 견디지 못하도록 제조되거나 과잉 생산된 ‘잉여’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사라지게 마련이다. 일회용 인간들도 제거 대상이기는 마찬가지다. 제거 작업자는 전직 경찰관, 군인들로 구성된 우익 단체들이다. 라틴아메리카에 매일 폭력이 난무하고 피가 흐르는 중요한 이유다.

텔레비전뿐 아니라 영화, 신문, 대형 출판사, 음반사, 라디오 등의 매스미디어도 소수의 독점체제를 구축해간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외주 공급도 과거의 30~50%에서 10%정도로 감소하였다. 전 세계 광고 지출액의 절반은 겨우 열 개밖에 안 되는 거대 재벌 손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영상, 언어, 음악과 관계된 모든 것의 제작과 배급을 독점한다.(2003b, 284)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몇몇 거대 미디어 재벌기업들은 소수 독점 권력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에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설치해 놓는다. 이들 ‘제국주의 권력’은 상호 협력하며 이익 극대화를 모색한다. 전 세계인을 상대로 소비를 명령하고, 폭력을 예찬하며, 강력한 힘의 상징을 보여주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2003b, 288) 광고가 만사를 좌우하는 세상이다.

갈레아노는 이렇게 소수의 미디어 권력이 전체주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7) 갈레아노는 그들을 ‘하찮은 사람들(Los nadies)’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은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이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당하고 또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값어치는 그들을 죽이는 총알의 가격보다 더 낮다”고 표현한다.(Eduardo Galeano, *El libro de los abrazos*, Montevideo: Ediciones del Chanchito, 1999, p. 59.)

경고한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지 의문시한다. 전 세계인이 접하는 뉴스의 대부분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그들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지구인 3명 중 2명이 제3세계에 살지만 주요 통신사의 3명 중 2명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한다는 사실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2003b, 290) 남반구에 대한 정보는 극소수다. 결국 남반구 사람들은 강대국들의 편견 어린 시각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고, 그나마 남반구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하거나 온통 부정적인 요소들뿐이다. 가난, 질병, 전쟁, 자연재해, 마약, 폭력 등이 단골 주제다. 자극적이어야 한다. 웬만해선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시장에서 잘 팔릴 만큼 시청자의 눈을 확 잡아끌어야 한다. 갈레아노는 세상이 거대한 ‘리얼리티 쇼’장으로 변해간다고 우려하며, ‘굶어죽는 사람들의 시체를 얼마나 많이 쌓아올려야 그들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카메라의 시선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탄식한다.(2003b, 296)

점점 발전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정보시스템은 라틴아메리카 인들을 폭력에 쉽게 몰들게 만들고 폭력이 마치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스크린,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에서는 폭력과 선정적 장면이 흘러넘친다. 어린이용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아르헨티나 어린이는 10세가 될 때까지 약 8만 5천 번의 폭력장면을 시청하고, 브라질 어린이들은 2분 46초마다 잔인한 장면을 본다”(2003b, 301)는 조사 결과도 있다. 공교육이 점차 약화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교육의 지배력은 상당하다. 미디어의 폭력은 현실에서의 폭력을 배가시킨다. 그러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익숙해가는 폭력의 일상화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도 딱히 없는 형편이다. 정치가들조차 선거 때 연설로만 외칠 뿐, 실제로는 “신세대의 정신적 식민지화”(2003b, 302)를 조장한다고 갈레아노는 비판한다.

그렇다면 자유시장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일까?’라고 갈레아노는 자문해본다. 대답은 간단하다: “국가는 공공의 안녕만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긴다.”(2003b, 30) 시장은 좋고 국가개입은 나쁘다는 것이다. 갈레아노는 국가가 더 이상 가난에 대해 손 쓸 수가 없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일만 남았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에 “공권(公權)은 권력이 베푸는 은혜로 전락해버렸고, 권력은 선

거 전날 자선을 베풀기라도 하듯이 국민 보건과 공교육에 관심을 가질 뿐”(2003b, 31)이라고 말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가난은 불의의 산물이 아니라 “무능력에 대한 정당한 벌”(2003b, 32)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구분되며, 못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사회 부적응자’, ‘패배자’들로 낙인찍히고 언젠가는 폭력을 휘두르는 반사회적 행동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에서 도시는 황폐화되고 대다수 도시민의 삶은 피폐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극심한 양극화와 폭력의 일상화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에 전개된 사회적 분열에 대한 ‘정치적 반동’의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표하고 있다. 막강한 세계주의 계급이 방대한 부를 축적하는 동안 갈수록 높아지는 빈곤층 시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막아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이제는 ‘정치적 추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 경제 거물들이 모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2007년 1월)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⁸⁾

다보스 포럼의 공식 요약본은 이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시대는 산업혁명 동안 민족주의나 파시즘, 공산주의의 부상을 조장했던 것과 똑같은 불균형과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에 따라 반동적이거나 퇴행적인 세력이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⁹⁾ 후진국들이 더욱 가난해지면서 붕괴되면 그 부담은 선진제국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 과거처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세력이 선동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갈레아노는 이런 전복적 미래가 올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다. 그런 미래를 희망한다. 그래야 일상화된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하랄트 슈만, 크리스티아네 그레페,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세계화의 미래』, 김호균 옮김, 영림카디널, 2010, 188쪽.

9) 2007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하랄트 슈만, 크리스티아네 그레페, 앞의 책, 190쪽에서 재인용.

못가진 자와 가진 자와의 장벽을 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인류의 역사에서도 축구에서와 같이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고, 모든 확실함을 무너뜨리며, 작은 다윗이 천하무적 골리앗에게 때로 멋지게 한 방 먹여줄 것”(2003b, 329)을 기대한다. 역사도 때로는 착각을 하고 한눈을 팔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V. 새로운 전쟁시장의 확충, 마약과의 전쟁

갈레아노는 과학기술과 자본의 완벽한 합성체로 군·산 복합체를 꼽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하게 된 미국의 독점자본은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군부·정치집단과 손잡고 군수산업을 팽창시킨다. 기술과 자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초국적기업과 결합한 군·산 복합체는 무기 수출에 주력한다. 이들은 새로운 전쟁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세계 곳곳에서 범죄와 마약 중독, 사회불안이 날로 커져만 가기 때문에 전쟁시장 만들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

냉전 종식 이후 주춤하던 무기 판매도 신자유주의 시대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무기 판매는 수출대상국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 갈레아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최고의 수출국 대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세계평화가 전쟁이라는 대규모 장사에서 가장 짝퉁한 이윤을 챙기는 다섯 강대국의 손에 달려있음”(2003b, 122)을 개탄한다. 특히 세계 무기 수출액의 40%가 미국의 몫임을 주목한다.

평화를 책임지던 나라들이 무기의 최강 수출국이 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는 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적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김승국은 “국민국가의 경계선을 없앤 신자유주의는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한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한 ‘국경초월의 전쟁’을 다그치면서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다”¹⁰⁾고 지적한다. 미국은 전쟁예산을 ‘국

방예산'이라 부르며 지구의 파수꾼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42년간 권좌를 누리다가 2011년 축출된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가장 몸값이 높았던 인물이다. 실제로 1980년대에는 그를 오사마 빈 라덴에 버금가는 인물로 지목하고 잡으려할 정도였다. 쿠바의 카스트로도 최근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기 전까지 근 56년 이상 미국의 단골 투쟁대상자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초국가적 군·산 복합체가 새로운 전쟁 대상으로 지목한 곳이 마약시장이다. 1989년 1월 레이건의 뒤를 잇는 보수 강경 정권인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무력개입이 노골화되는데,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 밝힌 마약과의 전쟁이 침공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공했다.¹¹⁾ 실제로 마약과의 전쟁 선포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군사통제, 더 나아가서는 정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다. 미 국방부는 마약퇴치를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 각국을 제멋대로 드나들며 정치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했다. 1989년 12월, 미국은 한때는 뒤를 봐주던 사이였으나 언젠가부터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파나마의 노리에가 정권을 무력으로 제거하기 위해 파나마를 침공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침공을 노리에가의 책동에 대한 미국의 자위권 발동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작전은 '힘의 외교'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다. 텔레비전은 시체가 100구라고 밝혔지만, 후에 공식적인 자료는 500구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 천 구라고 알려져 있다.(2003a, 153) 실제 침공 당시 파나마에서는 수많은 양민들이 미군의 폭격과 방화로 죽어 갔다고 한다.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세계화'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전쟁의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벌어진 폭력의 산물이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자국에서 생산되는 헤로인, 코카인의 근절에 대해서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타국에서 생산되는 헤로인

10) 김승국, 「신자유주의와 '군사'의 짝짓기」, <http://blog.naver.com/verthandi/90014284242>

11) 「마약전쟁(war on drugs)」이란 용어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국가안보결정문 221호」에 등장했다. 이로써 마약거래는 미국의 안보 이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규정되었고, 미국 군부는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마약퇴치법안'은 국제 마약 퇴치 전선이 하나의 전쟁터로 변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이성형,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그린비, 2009, 391-392쪽.)

과 코카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적으로 간주하는 이중성을 보여 준다. 라틴아메리카 현지에서 경작지 소거와 마약범 소탕을 위한 작전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그러나 미국도 마약의 주요 생산국인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의 경작지에 무차별적으로 독극물을 살포하는 것은 실효가 없음을 알고 있다. 재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오히려 재배지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¹²⁾ 미국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미국은 왜 지속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에 엄청난 무기를 제공하며 각국 정부에 마약의 발본색원을 주문하는 것일까? 갈레아노는 은행, 무기 제조업자, 군부와의 결탁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다.(2003b, 130) 마약은 은행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군부에게는 전쟁의 대상이 생기고, 무기제조업에는 비수기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마약과의 전쟁’은 이제 국제전이 되고 말았다. 미 국방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미 국방부는 ‘마약 테러리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자신들이 개입할 전쟁터를 만들어낸다.

마약퇴치라는 신성한 대의명분은 라틴아메리카 군부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미국이 지원하는 막강한 자금과 무기는 국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금과 무기가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 자본은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며, 최신 무기는 마약과 무관한 가난한 농민소탕에 허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기와 기술 자문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콜롬비아의 군부는 체계적으로 인권을 짓밟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례로 1992년 콜롬비아에서는 2만 6천 명이 살해되고 2만 명이 납치되었다.(2003a, 155)¹³⁾ 이

12) 마약을 공급 측면에서 줄이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빛나갔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대콜롬비아 군사원조는 6,9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15배나 증액되었지만, 코카 생산면적은 되려 67,200헥타르에서 168,800헥타르로 150%나 증가했다.(앞의 책, 390쪽.)

13) 미국의 대콜롬비아 마약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성형의 「미국의 대콜롬비아 마약전쟁: 현실주의 외교 논리의 문제점」(이성형, 앞의 책, 2009, pp. 389-415)을 참조하고, 멕시코와의 마약전쟁에 대해서는 김은중의 「박애주의자의 얼굴을 한 식인귀: 멕시코의 마약전쟁」(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편), 『2012 라틴아메리카 정치안정과 경제회복』, 이숲, 2012, 47-72쪽.)을 참조할 것.

중 상당수가 전직 경찰, 군인들로 이루어진 우익단체와 군부의 소행이지만 그들 중 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다. 이 점이 마약퇴치의 가장 큰 부작용이다. 즉 마약퇴치 전쟁은 사회의 부도덕한 전쟁을 은폐하는 가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갈레아노는 마약시장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파악하려 노력한다. 그는 “만일 마약 사용을 금지하거나 혹은 마약을 소비할 만한 소비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약사업은 곧 사라져버릴 것”(2003a, 154)이라며,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을 것인데, 왜 수요처인 미국에서의 문제 해결을 좌시하고 공급자인 라틴아메리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또 “왜 마스크는 마약에 대해 그렇게 떠들어 대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는가?”라며 마약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주목한다. 그는 소수의 성공이 다수의 실패를 의미하는 무자비한 경쟁적인 사회구조가 마약소비의 주 원인이라고 파악한다. 조바심과 고뇌, 고독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현대 생활양식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무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의 산물이고, 마약은 삶에 대한 공포의 산물”(2003a, 25)이라고 말한다.

마약 공급원 차단에 주력하는 미국의 정책은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등에서 소정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만을 재생산해내고 있다. 코카 재배지 이동으로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했다. 게다가 우익 민병대의 기승으로 인권침해가 빈발하며, 국가체제의 약화를 초래하는 악영향을 미쳐왔다. 미국의 학계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도 공급 측면의 마약 퇴치 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갈레아노도 “미국에서는 왜 국내 마약 거래망의 거물이 단 한명도 죽지 않는가?”(2003b, 134)라고 궁금해 한다. 그는 세계 마약의 반 이상을 사들이는 미국이 과연 세계 마약 전담 경찰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약 소비 증가의 원인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마약과 폭력은 동일한 병의 두 증후군일 것이다. 보다 훌륭한 정책은 증후군을 보고 처방을 하지 않는다. 훌륭한 마약 퇴치 전략은 콜롬비아 마약 생산의 ‘원인들’에, 미국에 난무하는 마약 소비의 ‘원인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¹⁴⁾이기 때문이다.

VI. 위선적 환경보호정책과 환경파괴의 가속화

갈레아노는 ‘라틴아메리카의 생태학으로 바라본 세계’라는 부제가 붙은 『쓰고 버려라』에서 현대 생태론자들의 위선과 환경파괴의 가속화를 고발하고 있다. 세계질서를 이끄는 국제기구와 세계적 산업을 이끄는 국제적 기업들이 녹색의 가면을 쓰고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위선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갈레아노는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지게 만드는 다섯 문장’을 제시하며 이들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다섯 문장을 살펴보자.

첫 번째 문장은 “지구 파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2003a, 9)라는 것이다. 현재 지구의 환경상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지만 모든 나라들은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갈레아노는 바로 그 보편성이 무책임하게 모두를 사면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곧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전문가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국제 조약문과 선언문에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권고하는 모호한 문구를 집어넣고 있으며, ‘발전’과 ‘환경’이라는 대립 구도에서 소비사회를 발전의 모델로 내세우며 이익의 극대화를 취하려는 대기업에게 면책권만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2003a, 9-10)

대량소비사회로 인한 자원 고갈의 주범은 극히 소수 인구에 불과하다. 갈레아노는 “전 세계 인구의 초 부유층 6%가 전 세계 자연자원과 에너지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고, 미국인 한 명이 소비하는 양은 아이티 사람 50명이 소비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주장하며, “만일 50명의 아이티 사람들이 갑자기 50명의 미국인들만큼 소비를 해 버린다면 어찌될 것인가”(2003a,122)라고 되묻는다. 지구가 멸망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해 에드워드 윌슨¹⁵⁾도 “모든 사람이 미국 수준으로 소비하려면 지구가 4개는 더 있어야 한다”며 이에 동조하고 있고, 노르웨이 수상 할렘 브룬트랜드 여사도 “만일

14) 이성형, 앞의 책, 415쪽.

15) 에드워드 윌슨, 『생명의 미래』, 전방욱 역, 사이언스 북스, 2005, 62쪽.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지금 서양선진국이 하는 것과 똑같이 소비를 한다면 지구가 열 개는 더 필요할 것이다”(2003a, 10)라며 극소수층의 소비행태에 경고를 보낸다. 결국 지구 환경 파괴의 책임은 인류 전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사회를 부추기며 달콤한 즙을 짜내는 대기업과 이를 부추기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녹색으로 칠한 것은 모두 녹색이다.”(2003a, 11)라는 것이다. 오늘날 다국적 화학회사들은 ‘녹색’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생태학’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세계은행 총재는 “우리의 차관 조건에는 엄격한 환경 규정이 있다”고 큰 소리 친다. 자신들에 대한 이미지를 깨끗하게 닦아내려는 노력이다. 세계은행은 소위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주요 채권자로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포로로 잡고 통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경제정책을 통제하게 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이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2003a, 11-13)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재정적 가사(假死)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즉석 주스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과 자연을 천연상태에서 쥐어짜서 즉시 지불과 단기 이윤을 보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거의 약탈 수준이다. 세계은행은 말 그대로 세계의 부와 발전 그리고 외국인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구다. 그런 세계은행이 국제연합과 함께 세계 환경기금을 운용하는 것부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세계은행이 환경보호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아마도 그 결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일 것이라고 갈레아노는 비꼬고 있다.

세 번째 문장은 “나무를 심는 일은 항상 자연을 사랑하는 행동이다.”(2003a, 14)라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국제 금융가들은 누구보다 생태보호에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은행은 산림조성 자금을 흔쾌히 대출해주고, 은행은 나무를 심음으로써 세계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런 행동은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고 세계인들은 감동을 받는다. 갈레아노는 이를 두고, 이미 불구가 된 희생자들에게 정형외과 의사를 뒤통에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한다. 은행들이 심은 나무는 이미 훼손된 자연림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예전의 산림은 전혀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자기를

멋대로 서로 엉켜서 조성되었고, 자기들끼리 현명하게 번식해서 다양한 삶의 원천을 이루었다. 하지만 새로 조성된 산림은 모두 똑같은 종류의 산업용 품종의 나무들로, 마치 군인처럼 질서정연하게 열을 맞추어 조성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나무들에서는 새가 울지 않는다.(2003a, 14-15)

결국 수출용 목재를 심는 것은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칠레 콘셉시온 남부지역에서는 소나무를 대량 재배해서 일본에 수출했으나 그 지역은 매년 가뭄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다.

네 번째는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생태학은 중립이다.”(2003a, 16)라는 문장이다. 갈레아노는 화학, 정유, 자동차산업을 이끄는 국제적 기업들이 녹색 가면을 쓰려는 허위의식을 고발한다. 그들이 보유한 연구소에서 자연에게 이로운 새로운 생명공학재배법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연구 결과는 어떤 종류의 ‘화학적 도움’ 없이도 중병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 강한 나무들을 발견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질병 치료제를 여전히 잘 견뎌낼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의 나무들을 찾아내는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약을 더 잘 팔게 만들기 위한 연구일 뿐이다. 그가 보기에 “‘중립적 생태학’이란 말은 정원조성술(庭園造成術)과 비슷한 말로써, 건강한 음식, 깨끗한 물, 맑은 공기와 조용한 환경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라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소수만의 특권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불의의 공범자”(B,8)를 뜻하는 말이라고 주장한다.(2003a, 16-18)

갈레아노는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 인들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학독극물과 산업폐기물에 의해 폐죽음을 당해야 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신(神) 또한 이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정도라고 질타한다. 갈레아노는 이들을 죽게 만드는 것은 시장의 자유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통제력을 잃고 공공의 건강을 등한시하는 국가 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

갈레아노는 생태학적 투쟁은 사회적 투쟁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치코 멘테스를 예로 든다.¹⁶⁾ 치코 멘테스 사건 발생 5년 후, 브라질 주교

들은 매년 토지개혁 투쟁으로 살해된 농촌 노동자들의 수가 100명이 넘으며, 내륙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도시로 나와 배회하는 실업 농민들의 수가 4천 명이 넘는다고 추산했다.(2003a, 19) 이런 현상은 결국 농민의 도시유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라틴아메리카 전체 도시 생태학의 재앙으로 변할 것을 갈레아노는 우려한다. 갈레아노는 이렇게 다국적 기업과 자유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희생되는 민중을 걱정한다. 동시에 정치적 약속 앞에서 속수무책인 생태학의 한계를 지적한다. 환경파괴의 원인에 대해 무기력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은 “자연은 우리 ‘밖’에 있다.”(2003a, 20)는 것이다. 지금은 자연 파괴자들조차도 자연보호를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그 자연은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환경 ‘안’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안한다. 현대인은 시계와 시간, 성장과 발전, 크기와 위대함을 혼동하듯이 ‘자연’과 ‘경치’ 또한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⁷⁾ 그러는 동안에 세계는 자연보호를 구호로만 외치며 정작 자기 주변의 환경보호에는 등한시하고, 대기 온난화의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이다. 갈레아노는 이런 환경파괴의 주요인을 하느님이 십계명에서 자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은근슬

16) 치코 멘데스(1944-88)는 아마존 지역 환경운동가로 1988년 말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서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었다가 살해된 인물이다. 그는 브라질에서의 농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마존 밀림은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다. 농지 개혁이 안 되면 라티퐁디오에서 축출된 농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밀림 내부의 라티퐁디오를 더욱 확장할 것이고, 식민자들의 군대가 소수의 대기업들의 책임 하에 나무를 벌목하고 인디오들을 멸종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토지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토지를 정복해왔고 지금도 정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7) 갈레아노는 500년 전 스페인 정복자들이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생활을 보고 자연숭배와 생태주의를 혼동했던 경험을 이런 현상의 단적인 예로 들고 있다. 당시 유목민 원주민들은 나무가 전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로 나무 한 그루 전체의 껍질을 벗기지 않았으며, 한 곳에 정주해서 사는 원주민들은 다양한 농작물을 경작하되 휴경기간을 두어 토양이 피로해지는 것을 막는 현명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런 원주민들의 문화를 단지 자연숭배로 이해했고 무지의 소산으로 여겼을 뿐이다.(2003a, 20)

쩍 비꼬고 있다. 예를 들면 신이 “우리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을 존중하라”는 말을 신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와 ‘자연’이 하나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2003a, 2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갈레아노는 다섯 가지 문장 속에 그럴듯하게 숨겨져 있는 허위의식을 고발하며 가속화되는 라틴아메리카 생태계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물론 생태계 파괴로 인한 대재앙이 롤랜드 에머리치 감독의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에서와 같이 불과 며칠 사이에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모든 생태계와 거주자를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들과 대중들이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갈레아노는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라틴아메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심화되면서 안전한 생활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될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간중심주의적 삶의 행태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자연주의적 삶의 형태를 유지하며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꾀하는 정책을 실시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Ⅶ. 맺음말

198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시장 자유화를 기초로 한 개혁을 외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패권을 쥐게 된 국제금융기관들은 라틴아메리카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사회 복지 희생과 투자 환경 보호를 우선순위로 정하게 되었다.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정책적 우선 순위를 차지했다.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은 증가했고, 소득은 아래로부터 위로 분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¹⁸⁾ 이런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문제를 단순히

18) 에릭 허쉬버그·프레드 로젠 외,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김종돈·강혜정

발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손실비용이 지나치게 크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기업 활동의 비용을 낮추려는 국가적 압력에 의해 빈민 노동계급은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텔레비전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량소비를 부추기고 이 소비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들은 결국 순수 소비 자본을 만들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택하게 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제거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라틴아메리카에 폭력이 일상화되는 악순환의 시작점이다. 갈레아노는 이 부분에서 소수 거대기업이 좌지우지하는 미디어 권력의 불공정 보도와 선정성을 고발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 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점을 예로 든다. 미국은 ‘마약퇴치법안’까지 마련하면서 라틴아메리카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만들었다. 갈레아노는 이런 미국의 행동의 순수성을 의심한다. 이는 끊임없는 팽창을 원하는 초국적기업과 미국 군부·정치권의 결탁의 결과라는 것이다. 미국 내 마약소비의 원인보다는 공급원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의 협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파괴행위는 절대로 두드러지거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생태보존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행동만 한다. 녹색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 갈레아노는 이들이 쓰고 있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허위에 가득 찬 모습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그래서 인간주의적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주의적 삶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다양한 문제들은 미국과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원칙을 강요당한 결과라는 것이 갈레아노의 입장이다.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씨라 그리고 버려라』와 『거꾸로 된 세상의 학교』에서 갈레아노가 제시한 문제점과 시대정신은 이 시대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시대의 비판적 관찰자이자 경고자로서의 갈레아노의 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열정적으로 끌어안고 가면서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간파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의 글은 추상적이거나 공허하지 않다. 다양한 예를 들어 실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글은 간결하지만 비판은 날카롭고 매섭다. 현대인을 잠에서 깨우려는 채찍과 같다.

❖ 참고 문헌

- 김승국, 「신자유주의와 ‘군사’의 짝짓기」, <http://blog.naver.com/verthandi/900142842>
42 (2015.10.24. 검색)
- 김은중, 「박애주의자의 얼굴을 한 식인귀: 멕시코의 마약전쟁」, 『2012 라틴아메리카 정치안정과 경제회복』, 2012.
-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최병두 옮김, 한울 아카데미, 2005.
-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현대사회는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사회로 치닫고 말 것인가?,” 피에르 부르디외 외 23인 지음, 최연구 옮김, 『프리마토피아를 넘어서』, 백의, 2003.
- _____, “새로운 비행으로의 초대,” 코피 아난 외 14인 지음, 『60억번째 세계시민에게 보내는 편지』, 이창식 옮김, 들녘, 1999.
- 에드워드 윌슨, 『생명의 미래』, 전방욱 역, 사이언스 북스, 2005.
- 에릭 허쉬버그 · 프레드 로젠 외,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김종돈 · 강혜정 옮김, 모티브북, 2008.
- 유왕무,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작품에 나타난 생태학적 세계관 연구」, 『스페인어문학』 제39호, 2006.
- _____, 「갈레아노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현실과 창조적 형상화」, 『세계문학비교연구』 제17집, 2006.
- 이성형,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그린비, 2009.

- 조돈문 · 이남섭 · 이내영 편,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 도서출판 오름, 2005.
- _____,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도서출판 오름, 2005.
- 하랄트 슈만, 크리스티아네 그레페,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세계화의 미래』, 김호균 옮김, 영림카디널, 2010.
- 한병철, 『심리정치』,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4.
- 헨리 지루, 『신자유주의의 테러리즘』, 변중헌 역, 인간사랑, 2009.
- GALEANO, Eduardo, *Patas arriba: la escuela del mundo al revés*, Buenos Aires: Catálogos, 2003.
- _____, *Úselo y tírelo; el mundo visto desde una ecología latinoamericana*, Buenos Aires: Planeta, 2003.
- _____, *El libro de los abrazos*, Montevideo: Ediciones del Chanchito, 1999.
- BARROS-LEMEZ, Alvaro, “La América Latina: lucha, exilio y narrativa en la obra de Eduardo Galeano,” en *Casa de Las Américas*, No.166, Año XXVIII, 1988.
- CAMPANELLA, Hortensia, “La memoria insustituible,” en *Cuadernos hispanoamericanos*, No.346, Abril, 1979.
- ESTHER GILIO, María, *Emergentes*, Buenos Aires: Ediciones de la Flor, 1986.
- FERRARI, Sergio, *Sembrando Utopía: Reportajes y Conversaciones*, Managua: Ediciones Nicaragua, 1992.
- FISCHILIN, Daniel & NANDORFY, Martha, *Eduardo galeano _ Through the looking glass*. Montreal: Black Rose Books, 2002.
- HENRIQUEZ LAGARDE, Manuel, "Las huellas de la pelea," en *Casa de las Americas*, No.174, Año XXIX, 1989.
- PALAVERSICH, Diana. *Silencio, voz y escritura en Eduardo Galeano*, Montevideo: Luis A. Rella Libros Editor, 1995.
- RIVA, Hugo, *Memoria viviente de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Editorial Lumen, 1996.
- SAZ, Sara M, “Breath, liberty, and the word: Eduardo Galeano's interpretation of history,” en *Secolas Annals*, Vol. XXI, march, 1990.
- SAAD, Gabriel, “Eduardo Galeano: la literatura como una pasión latinoamericana,” en *Cuadernos Iberoamericanos*, No. 324, junio, 1977.

❖ ABSTRACT

The Violence of Neoliberalism Represented in the Works of
Eduardo Galeano

Yoo, Wang-Moo

In the twenty-first century,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concerns neoliberal policies and its results. In particular, since the mid-1980s,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imposed their programs on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result is a deepening social inequality in Latin America that puts an emphasis on financial stability instead of social security. Consequently, social inequality is worsened and an imbalance in income distribution took place. Because of the flexibility of labor, the middle class is destroyed. For the poor person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rise, violence is a common occurrence in daily life. Thus, in this context, Eduardo Galeano raises the necessity of a critique concerning the values that neoliberalism regards as important. Furthermore, Galeano is also wary of the “militarization of neoliberalism.” This is because the neoliberal multinationals motivate a war without borders under the guise of peace. Neo-liberal policies also contribute to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environmental vandalism, which happens in partnership with larg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not readily apparent to the public because those perpetrators wore a “green mask.” Hence, Galeano assiduously endeavors to undercover the false consciousness hiding behind the green mask. Thus, in brief summary, Galeano represents in his works a depiction about Latin America where violence often happens in daily life.

Key Words

Eduardo Galeano, neo-liberalism, literature of violence, *Upside Down: A Primer for the Looking-Glass World*, *Úselo y tírelo*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06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